청소년 건강한 성장 돕는다

전북교육청, 오늘 '7560+ 운동' 실천학교 50곳 대상 발표대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체력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부터 7560+ 운동 실천학교 50곳을 대상으로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560+ 운동'은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 누적 60분 이상 운동'을 뜻하며,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체력 증진, 질병예방, 비만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운동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이 즐겁고 재미있는 신체활동을 하며 잠재된 뇌를 깨워 집중력 및 학습효과를 극대화 하고 건강체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실시해왔다.

이번 대회는 운영 결과 보고서를 통한 서면심사 형태로 진행된다.

대회 심사 기준은 ▲주당 신체활동 참여일수가 정규수업 외 의도적 계획으로 60분/1일 이상 운동학교 ▲7560+ 운동을 위한 내용선정-추진전략-실천 방법의 일치성 ▲실제 운영을 통한 운영성과의 우수성 ▲결과보고서의 논리성 및 명확성 ▲7560+ 운동 운영 프로그램의 학교 현장에 일반화 및 보급 가능성 등이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 1명, 우수작 2명을 선정하고 최우수작 1명, 우수작 2명, 장려작 10명 등 총 13명에게 부상을 수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단위 또는 학년단위 7560+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 건강과 체력에 힘쓸 것"이라며 "발표대회를 통해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학생 건강체력 향상 및 행복교육 운영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남 강진에서 열린 '2020 전국학교대항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군산대 배드민턴부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군산대 배드민턴부 단체전 '전국 최강'

전국학교대항 선수권대회 우승

군산대학교 여자 배드민턴부가 전국대회 정상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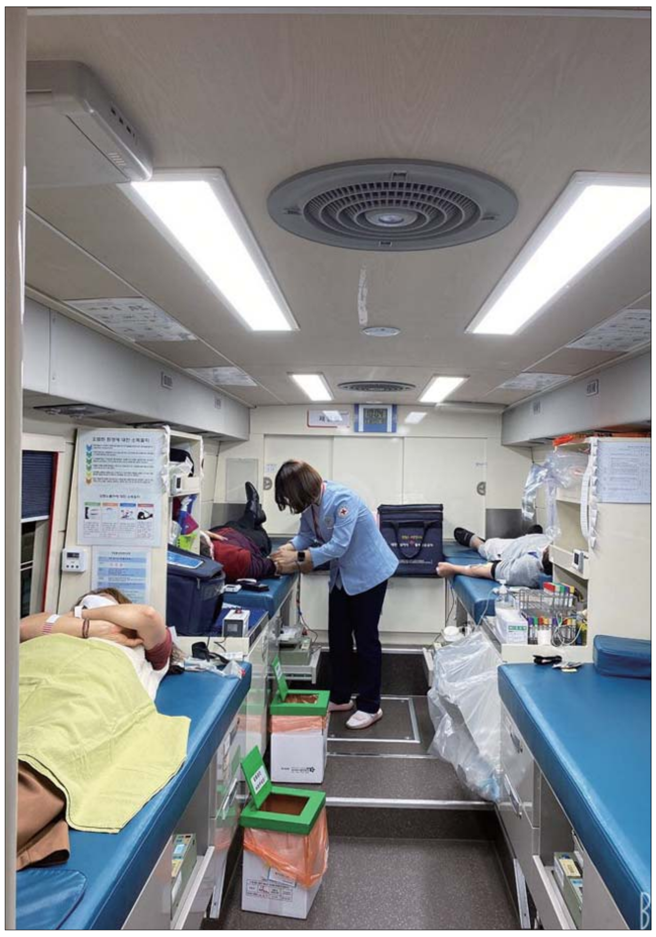
8일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최근 전남 강진에서 열린 '2020 전국학교대항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군산대 배드민턴부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군산대는 8강전에서 세경대를 3대1로, 준결승전에서 중앙대를 3대0으로 완파했다.

결승전에서 부산외국어대와의 접전 끝에 3대2로 승리, 우승을 거머쥐며 '셔틀콕 명가'임을 증명했다.

단체전 우승에 이어 개인전에 출전한 황현정은 단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덕준 감독은 "이전에 출전한 대회에서 단체전 준우승에 그쳐 아쉬웠는데 올해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 유종의 미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사랑의 헌혈' 동참

전북교육연구정보원(원장 이재송)은 최근 '2020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 지난 3월, 5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행사는 단체헌혈 및 개인 헌혈이 줄어 혈액수급 위기단계가 '관심' 단계인 상황에서 혈액 수급의 어려움 해소에 동참하고자 마련됐다. 헌혈 행사는 청사 주차장 헌혈 버스에서 이뤄졌다. 특히 마스크 착용 및 대기 중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 통제 하에서 안전하게 진행됐다. 최근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헌혈 참여가 더욱 위축된 상황임에도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장은성 기자

2021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전북교육청, 대상자 70명 뽑는다

초등교사 등… 10일까지 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1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기본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 오는 10일까지 특별연수 대상자 서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직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자발적 연수와 연구 풍토 조성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및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2021학년도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교사 4명, 초등교사 43명, 중등교사 23명 등 총 70명이다.

지원자격은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중 실교육경력 정규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전라북도 학교 근무 실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유치원 교사는 공립만 지원 가능하며, 국・사립학교 재직 교사는 임용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선발 절차는 1차 적격여부 심사, 2차 연구수행능력 심사, 3차 학교교육 기여도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5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연수 대상자는 오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자율연구와 정책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수를 통해 우수 교원에 대한 보상 기회 제공, 교직에 대한 자긍심 고취, 현장 연구를 통한 학교교육개선 역량을 제고하고자 한다"면서 "교직사회의 학습문화 정착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연수결과 및 교수학습 기법 확산으로 전북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전주대 LINC+사업단, 상호협력 협약

전주비전대 LINC+사업단(단장 최승훈)은 8일 통합멀티미디어 컨퍼런스룸에서 전주대 LINC+사업단(단장 주송)과 산학협력 플랫폼의 구축을 위해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회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한 학생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LINC+사업 운영을 통한 정보교환, 기술교류, 성과확산 및 공유 등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뉴노멀 산학협력 교육플랫폼 구축 및 연구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공동 수행 ▲특화교육 프로그램(드론 이론 및 축구 교육) 공동 수행 ▲한국대학드론축구대회 참여 ▲ 4차 산업혁명 Maker 행사 공동개최(예정) ▲LINC+사업 성과확산 포럼 공동개최(예정) ▲각 대학 LINC+사업 자체평가위원회 참여인력양성, 기술교류 등이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 'E-테크노마켓' 온라인 개최 성료

군산대학교가 최근 '제11회 E-테크노마켓'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행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고, 총 39팀이 참가해 제출한 영상을 통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예선심사를 거쳐 총 10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청춘당에서 실시간 본선심사를 거쳐 대상, 금상, 은상이 결정됐다.

군산대 곽병선 총장을 비롯해 LINC+사업단 김영철 단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이종찬, 공학교육혁신센터장 황재정 교수, (유)동아하이테크 박병길 대표 등이 사전에 참여하여 제작한 E-테크노마켓 홍보영상도 송출됐다.

본선 심사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됐고, 본선의 학생 발표는 실시간 ZOOM시스템을 이용했다.

군산대학교 LINC+사업단・공학교육혁신센터가 주최한 테크노마켓은 캡스톤디자인과 연계한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증대시키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을 통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특허 및 기술 거래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E-테크노마켓은 총 39팀이 참여고, 참가팀 중 대상을 포함해 총 24팀을 선발했다. 우수 수상팀에게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CEDC(Creative Engineering Design Competition) 국제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참가 지원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내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개최 여부가 미지수이다.

테크노마켓에서는 매년 단과대학별 우수작품 전시, 진로체험 부스, 캡스톤 플리마켓 독립부스, 창업동아리, 창의적 공학 입문설계 경진대회, NCS역량중심 입사지원서 경진대회, 부스별 모의투자 대회 등이 진행됐는데, 올해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행사들이 취소됐다.

군산대 김영철 LINC+사업단장은 "캡스톤디자인이 공과대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예술대학에서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캡스톤디자인 작품이 창업팀과 연계하여 진행되면 작품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산=남현봉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